

# 원희룡 장관, 은마아파트 찾아 GTX-C 공법 안전성 설명

## - 23일 주민대표들에 사업 정상 추진 협조 요구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3일(수) 오후 4시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(GTX-C)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과 함께 은마아파트 주민대표들에게 GTX-C 공법이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.
    - 원 장관은 공법 및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, 안전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.
  - 원 장관은 “GTX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 핵심 사업이고, 특히 GTX-C는 수년간 착수가 지연되고 있어 수도권에 많은 시민들이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고 있다”고 강조하였다.
    - 특히,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“GTX는 60m 이상 대심도 터널 공사이고, 은마아파트 구간은 발파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력이 총동원되는 TBM 공법\*으로 계획되어 있다”며, “GTX는 주택가뿐만 아니라 한강 하저도 통과하는데, 단순히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”고 밝혔다.
- \* TBM(Tunnel Boring Machine):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하여 굴착하는 기계로, 진동 및 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 가능
- 실제 GTX-A 예정노선 중 3개 구간과 서울도시철도 노선 가운데 18개 구간 이상에서 주거지 하부를 통과하고 있으며, 철도건설 후 상부에 주택을 재건축한 사례도 12곳 이상에 달한다.
- 또한, 원 장관은 “현재 노선은 ‘14년 예타 때부터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선정된 결과이고, 준비된 원안으로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“매일 30만명 이상 시민의 발이 될 GTX-C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며, '23년 착공·'28년 개통이라는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- 또한, 원 장관은 “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, 국가사업을 방해하고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”고 밝혔다.
- 특히 “총 4,424세대 중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전체 사업 뿐만 아니라, 총 4.3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,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- 안전 우려에 대한 주민 설명을 마친 후에는 “안전한 공법에도 불구하고 은마아파트만 유독 주택 하부에 철로가 지나가면 안된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”며,
- “근거 없는 반대로 국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추고, GTX-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협조해 줄 것”도 당부하였다.

2022. 11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